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gional Festival

이회경*, 박종관**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Hoe Kyoung Lee(sunnog@hanmail.net)*, Jong Gwan Park(63312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인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축제는 지역민의 공감과 협조를 통한 최선의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지역사회자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내부적 자생력과 이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요소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의 인지도 및 찬성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축제의 참여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시민단체나 지역의 교육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 사회자본 | 지역축제 | 주민참여 | 인지도 | 찬성도 | 참여도 |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a simple research question such as how the core factors of social capital impact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festival and suggests some agenda related to this issu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 the necessity of some effective policy to help regional festival operating more citizen-oriented way which could lead citizen more corporative to the festival. Also Strengthening regional social capital could be the core factor to establish sustainability of regional society. Well-established social capital make regional festival more successful and regional economy more affluence. So Local Government have to make her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and activate social capital in regional level.

■ keyword : | Social Capital | Participate | Area Festival | Awareness | Approval | Participation |

I. 서론

지방화 시대는 지역문화의 창조와 육성에 지역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

다. 주민참여는 지역유대를 강화시키고 지역문화를 꽃피우며, 개성이 풍부한 지역건설을 시도하는 등 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한 관련 변수로서 사회

적 영향 인지보다 지역축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참여 없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참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최근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주민참여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학문연구의 새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는 학자들 간에만 논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내에서도 활발히 통용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역축제의 중요성과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지역축제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누가, 왜, 지역축제에 참여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인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축제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첫째, 사회자본의 이론을 소개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사회자본의 개념, 연구의 필요성, 한계 및 국내외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다[2]1). 또한 사회자본의 생성을 촉진시킬 전략과 제도적 조건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모색하는 연구도 있다[3].

둘째, 사회자본의 개념과 논리를 특정 정책의 새로운 논리로 도입하거나 사회자본의 생성을 촉진시킬 전략

과 제도적 조건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사회자본을 지역사회개발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부류이다. 이러한 부류는 대개 지역사회개발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로 사회적 자본과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연구[4],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연구[5]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개념과 논리를 특정 정책의 새로운 논리로 도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사회자본을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자본의 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연구[7],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하나로 협력적 계획모형을 제시한 연구[8]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과 경제발전 연구 등이 있다[9].

셋째, 사회자본의 개념과 논리를 우리나라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과 관련된 연구[10],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11] 등이 있다. 또한 사회자본과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도 있다[12].

넷째, 사회자본을 우리나라의 신뢰와 관련지어 연구한 부류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신뢰위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 확대를 제시한 연구와[13], 신뢰문제를 이익집단 간 갈등과 연계하여 이익집단 갈등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역설한 연구가 있다[14]. 다음으로 사회신뢰와 민주주의를 연계한 연구와[15], 결사체 참여가 사회자본 및 정부신뢰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연구가 [16] 있으며, 박희봉 외[17]은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신뢰수준과 영향요인을 연계시켜 연구하였다.

다섯째, 기타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로는 우선,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와 관련하여 결사체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있다[18]. 다음으로 조직내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하여 지적사회자본 형성 및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19] 있으며, 광현근 [20]은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을 도

1) 김남선은 Putnam의 사회자본측정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사회자본연구의 동향을 ①사회자본개념관련 내용분석 ②주체관련 내용분석 ③적용대상관련 내용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 측정 방법의 분석에서 Putnam과 Fukuyama의 방법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출하고 이를 시민단체의 참여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다[21].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사회발전의 척도를 자본축적의 정도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역축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정립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지역축제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군을 크게 사회자본과 지역변수로 나누었다. 사회자본의 하위 변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협력, 정보공유, 의사소통이며,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역변수는 대전광역시, 금산군, 청양군으로 지역별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았다.

배경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기간, 학력, 직업, 소득수준이다. 외국의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학력, 직업, 수입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²⁾,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 외에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추가한 이유는 박희봉·김명환[24]연구에서 성과 거주형태 등이 지역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지적하였으며, 유재원[25]연구에서도 사회신뢰의 형성이 결사체의 영향보다 교육, 소득, 연령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³⁾.

본 연구 지역변수의 지역요인은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중요시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지역사회자본이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때문이다. Putnam[27]은 지역을 사회자본의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고 있으나⁴⁾, 박희봉[28]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역사성과 문화적 차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축제에서 거주지, 거주기간 등 지역요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요인들을 주요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들의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태도로 구성된 지역축제에 대한 인지도, 찬성도, 참여도이다. 이 세 변수는 사회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행사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 구성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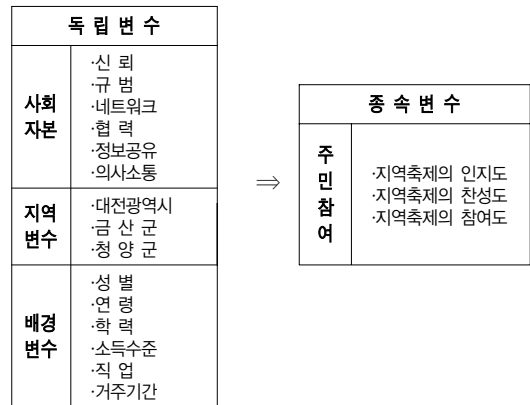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II. 조사설계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10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대전광역시, 금산군 및 청양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1,200부를 배부하여 1,084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022부를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설문문항은 사회자본 핵심요소 중 신뢰 5문항, 규범 4문항, 사적 네트워크 3문항, 공적 네트워크 2

문항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2) 사회자본은 개인적 특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Putnam(1993)[22]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을 분석하였으며, Coleman(1988)[23]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3) Serageldin & Grootaert(2000)[26]에 따르면 “각 나라 및 시대마다 사회자본의 적절한 수준과 요소가 다르다”고 한다.
 4) Putnam(1993)과 Fukuyama(1999)는 지역이 사회자본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Putnam(1993: 78)은 “사회자본은 교육, 빈부, 나이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즉, 어디서 사

문항, 협력 4문항, 정보공유 5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사회자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최영출[29], 김형곤·고성태[30], 윤유식·박덕병[31]이 사용한 설문문항과 박희봉[32]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중 필요한 항목을 사용하였고, 척도는 5점 리커트 평가척도(5point Likert ration scale)로 구성되었다.

개인별 배경 변수는 성별, 나이, 거주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학력, 직업, 월 평균소득수준 5문항으로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구성하여 자기방어나 거부의를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였다.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인지도, 찬성도, 참여도 관련 문항과 개인별 특성 문항은 현상을 파악하고자 명목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자료는 통계분석을 위한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사회자본과 주민참여간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지 문항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⁵⁾.

IV. 실증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구학적인 통계처리를 위해서 응답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등에 관련된 6개 문항으로 이러한 특성을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은 전체 남성이 63.3%인 647명이며 여성이 36.7%인 375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두 배가 약간 되지 않는다. 둘째,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30세 미만은 29.0%, 30-39세 미만은 26.1%, 40-49세 미만은 24.4%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 연령대가 약 80% 정도에 이른다. 셋째, 거주기간은 전체 20년 이상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19년 17.7%, 10-14년 17.4%, 5-9년 14.9%, 1-4년 11.0%, 1년 미만은 5.6%로 10년 이

상 장기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은 전체 대졸이 55.1%로 가장 높고, 고졸이 31.1%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별로는 전체 학생이 18.3%로 가장 높았고, 회사원, 농업/축산업/임업/, 영업 및 공무원이 12%-15%대를 구성하고 있다. 여섯째, 월평균소득은 전체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31.8%로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 27.7%, 300-400만원 14.7%, 100만원 미만 13.1%, 400-500만원 6.5%, 600만원이상 3.2%, 500-600만원 미만 3.0%순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⁶⁾

1) 사회자본과 지역축제의 인지도 가설검증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모형은 전체 설명력(R²)은 33%였다. F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한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점검하였다. [표 1]에서 공선성통계량을 살펴보면 각 독립변수 별 공차한계 값이 0.1보다 훨씬 크고, VIF는 10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인지도 영향요인은 신뢰(β=0.283), 공격네트워크(β=0.148), 사적네트워크(β=0.068), 정보공유(β=0.202)요인이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규범, 협력, 의사소통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1-1> 신뢰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3> 네트워크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5> 정보공유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라는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2>, <가설 1-4>,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영향의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측정도구의 타당성분석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el Component Method)에 의한 Varimax회전을 하여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이고 추출값(Communality)이 0.40이상으로 하였다. 신뢰성분석은 Cronbach's-α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방법으로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6)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지역축제의 인지도, 찬성도, 참여도와 관련된 6개씩 총 18개의 가설이 설정되었으나 지면관계상 가설의 설명은 생략한다.

$$\text{지역축제인지도} = 1.327(\text{상수}) + 0.309 * \text{신뢰} + 0.116 * \text{공적네트워크} + 0.060 * \text{사적네트워크} + 0.244 * \text{정보공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상관관계에서 사회자본변수는 모두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인지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고, 단순회귀분석에서는 규범, 협력, 의사소통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영향력이 강한 신뢰요인과 정보공유요인이 추가됨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공적네트워크($\beta=0.148$)와 사적네트워크($\beta=0.066$)에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고단체참여보다 자발적 지역사회 조직참여가 높을수록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인지도

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자본과 지역축제의 찬성도 가설검증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형은 전체 35%의 설명력(R^2)을 가지며, F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찬성도의 영향요인은 신뢰($\beta=0.248$), 규범($\beta=0.105$), 공적네트워크($\beta=0.074$), 협력($\beta=0.094$), 정보공유($\beta=0.147$)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요인과 사적 네트워크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설 1-1> 신뢰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2> 규범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3>

표 1. 인지도 가설검증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1.327	.115		11.504	.000		
신뢰	.309	.042	.283	7.315	.000	.419	2.388
규범	.061	.048	.052	1.280	.201	.384	2.601
공적네트워크	.116	.023	.148	4.997	.000	.715	1.399
사적네트워크	.060	.027	.066	2.180	.029	.683	1.464
협력	.002	.038	.002	.064	.949	.533	1.875
정보공유	.244	.045	.202	5.459	.000	.455	2.196
의사소통	-.010	.039	-.009	-.256	.798	.501	1.995

$R^2 : 0.331$, Adj. $R^2 : 0.327$, $F = 75.656$, $Sig = 0.001$

표 2. 찬성도 가설검증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1.148	.112		10.232	.000		
신뢰	.267	.041	.248	6.509	.000	.419	2.388
규범	.123	.047	.105	2.641	.008	.384	2.601
공적네트워크	.057	.023	.074	2.532	.011	.715	1.399
사적네트워크	.046	.027	.052	1.733	.083	.683	1.464
협력	.103	.037	.094	2.788	.005	.533	1.875
정보공유	.176	.044	.147	4.036	.000	.455	2.196
의사소통	.045	.038	.041	1.184	.237	.501	1.995

$R^2 : 0.351$, Adj. $R^2 : 0.346$, $F = 82.464$, $Sig = 0.001$

네트워크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4> 협력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5> 정보공유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라는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영향의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xt{지역축제찬성도} = 1.148(\text{상수}) + 0.267 * \text{신뢰} + 0.123 * \text{규범} + 0.057 * \text{공적네트워크} + 0.103 * \text{협력} + 0.176 * \text{정보공유}$$

이러한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분석에서 지역축제와 사회자본 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인들 즉, 신뢰, 규범, 정보공유 요인이 상대적 영향력 크기 때문에 높게 나왔으나, 단순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의사소통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자본과 지역축제의 참여도 가설검증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형은 전체 34%의 설명력(R²)을 가지며, F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참여도의 영향 요인은 신뢰, 공적네트워크, 정보공유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범, 사적네트워크,

협력, 의사소통 요인은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였다.

이를 통해 <가설 1-1> 신뢰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3> 네트워크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다, <가설 1-5> 정보공유 수준과 지역축제의 인지도는 정(+)의 관계일 것이라는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2>, <가설 1-4>,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이런 영향의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xt{지역축제참여도} = 1.065(\text{상수}) + 0.186 * \text{신뢰} + 0.268 * \text{공적네트워크} + 0.208 * \text{정보공유}$$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사회자본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지역축제의 인지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상관관계분석에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었던 변수들이 영향력검증에서 탈락되었다는 점과 단순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변수들이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뢰요인과 공적네트워크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사적네트워크와 공적네트워크가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 태도에서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적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봉사단체나 지역사회단체 등 자발적 지역사회단체의 참여가 연고단체 참여보다 지역축제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참여도 가설검증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1.065	.128		8.310	.000		
신뢰	.186	.047	.157	3.958	.000	.419	2.388
규범	-.037	.053	-.029	-.703	.482	.384	2.601
공적네트워크	.268	.026	.316	10.406	.000	.715	1.399
사적네트워크	.008	.030	.008	.258	.796	.683	1.464
협력	.069	.042	.058	1.641	.101	.533	1.875
정보공유	.208	.050	.159	4.175	.000	.455	2.196
의사소통	.051	.044	.042	1.165	.244	.501	1.995

R² : 0.294, Adj. R² : 0.289, F= 63.540, Sig=0.001

V.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자본을 지역축제 주민참여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사회자본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협력, 정보공유, 의사소통을 구성요소로 하여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인 지역축제의 인지도, 찬성도,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금산군, 청양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사회자본과 지역축제의 주민참여 태도와 관련된 인지도, 찬성도, 참여도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과 관련된 <가설 1-3>, <가설 1-5>는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2>, <가설 1-4>,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첫째는 상관관계에서 사회자본변수는 모두 지역축제의 인지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단순회귀분석에서는 규범, 협력, 의사소통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영향력이 강한 신뢰요인과 정보공유요인이 추가됨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공적네트워크와 사적네트워크에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고단체참여보다 자발적 지역사회 조직참여가 높을수록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태도와 관련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2>와 관련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 <가설 1-5>는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지역축제와 사회자본 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인들 즉, 신뢰, 규범, 정보공유 요인이 상대적 영향력 크기 때문에 높게 나왔으나, 단순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의사소통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과 관련된 <가설 1-1>, <가설 1-3>, <가설 1-5>는 채택되었고, 나머지 <가설 1-2>, <가설 1-4>,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상관관계분석에서 사회자본의 하위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맺었던 변수들이 영향력검증에서 탈락되었다는 점과 단순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변수들이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뢰요인과 공적네트워크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사적네트워크와 공적네트워크가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태도와 관련된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적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봉사단체나 지역사회단체 등 자발적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연고단체참여보다 지역축제참여도를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축제는 지역민의 공감과 협조를 통한 최선의 지역축제계획수립과 주민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지역사회자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사회사회의 내부적 자생력과 이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자본의 속성이 사회 네트워크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의 인지도 및 찬성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축제의 참여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다양한 발전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고유한 사회사회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주민참여 과정에서 사회자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논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축제와 지방자치참여의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33]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 사회자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역별 사회자본 활성화 정도에 대한 논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국가,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자본의 측정이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자본은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자본의 형

성, 유지, 확대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지역축제 등)에의 참여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유광민,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자본과 리더십 : 사례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8권, pp.177-199, 2006.
 [2] 김남선, “사회자본의 연구동향과 측정방법의 탐색”,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제26권, 제2호, pp.27-45, 2001.
 [3] 최창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48권, 2000.
 [4]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4권, 제1호, 1999.
 [5] 김남선, 김만희,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제10권, 제2호, pp.1-30, 2000.
 [6] 김혜란, 사회자본과 여성정책,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1.
 [7] 오철호, “정보통신기술, 사회자본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하나의 연결 설계”, 한국행정학회, 2001.
 [8] 서순탁,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2001.
 [9] 장수찬,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과 경제발전,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1.
 [10] 박희봉, 김명환, “지역사회자본과 거버넌스능력”,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2000.
 [11] 박희봉,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논문집, 2001.
 [12] 임정호, *사회자본과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대학원, 2001.
 [13] 박찬웅,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집, 1998.
 [14] 박상필,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pp.121-138, 2000.

[15] 장수찬, 사회적 수준에서 살펴본 신뢰와 민주주의, 한국NGO학회 춘계 학술대회논문집, 2002a.
 [16] 장수찬, “한국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1호, 2002b.
 [17] 박희봉,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제8권, 제1호, p.5, 2002.
 [18] 유재원,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2000년 한국행정학회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
 [19] 김상목, 박희봉, 강제상, 지적자본 형성 및 효과,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1.
 [20]곽현근, “동네 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pp.259-285.
 [21] 백명자, *사회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대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2]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 Spring, 1993.
 [23] J.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Supplement, 1988.
 [24] 박희봉, 김명환, “지역사회자본과 거버넌스능력”,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2000.
 [25] 재원,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2000년 한국행정학회세미나 발표논문집.
 [26] Seragedin and Grootaert,.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r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0.
 [27] R.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a.
 [28] 박희봉,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2001년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논문집, 2001.
 [29] 최영출,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지방

정부연구, 제8권, 제3호, pp.119-144, 2004.

[30] 김형곤, 고성태, “농촌관광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연구: 마을지도자들 인식조사”, 한국관광레저학회, Vol.20, No.2, pp.29-49, 2008.

[31] 윤유식, 박덕병, “농촌관광마을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이 농촌관광개발효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관광학회, Vol.32, No.2, pp.193-211, 2008.

[32] 박희봉, 사회자본, 서울: 조명문화사, 2009.

[33] 박종관, “지역공동체형성전략”,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7호, 2012.

저 자 소 개

이 회 경(Hoei-Kyoung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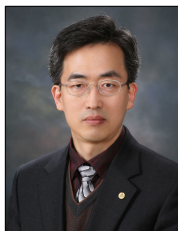


- 2010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0년 ~ 현재 : (주)선농기획실장
- 2012년 ~ 현재 : 한국공공행정학회 여성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관심분야> : 지방행정, 사회자본, 사회복지, 행정혁신, 사회적 기업창업

박 종 관(Jong-Gwan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9년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주임
- 2010년 1월 ~ 12월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2008년 12월 ~ 현재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

▪ 2012년 1월 ~ 현재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2010년 3월 ~ 현재 :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

<관심분야> : 구역개편, 성과관리, 사회자본, 정부기능